

1분기 지식재산 무역적자 '역대 최저'

7.8억 달러로 전년비 60%↓ ... 제약사 등 중기 6.3억 달러 흑자·대기업 로열티 감소 영향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적자규모가 역대 1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6년 1분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수출액은 2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35억8000만 달러에 달하면서 7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내었다.

이는 전년 동기(19억7000만 달러)보다 60.4%나 줄어든 규모다. 전분기(12억9000만 달러) 대비로도 39.5% 줄어 들었다. 또 1분기 중에서는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다.

1분기 적자폭이 예년 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국내 제약회사가 프랑스에 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흑자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분기 6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며,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또 대기업들이 주로 전기·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적자가 다소 개선된 영향도 있다. 1분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는 6억3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18억7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줄었다.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국내 중소·중견 제약회사가 프랑스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판매 로열티를 받아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와의 거래에서 첫 흑자가 났다"며 "또 대기업들의 로열티 지급이 줄어



IT융합 엑스포 개최 24일 오전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정보기술(IT)융합엑스포'에 참석한 사람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17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IT 제품을 전시한다.

들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폭이 다소 개선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은 1분기 8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6억3000만 달러, 디자인권 2000만 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1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반면 저작권은 1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문화예술저작권이 1억6000만 달러 적자,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 거래가 2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와의 거래에서 사

상 첫 흑자전환을 이뤄냈다. 1분기 프랑스에 대한 흑자규모는 3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000만 달러) 및 전분기(-9000만 달러)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베트남의 경우 흑자규모가 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3억3000만 달러)에 비해 더 늘어났다.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4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적자가 10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년 동기(23억4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9억6000만 달러

의 적자를 냈고, 서비스업도 1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기관형태(국내+외국인투자 기업)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9000만 달러 흑자를 낸 반면 대기업은 8억9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중소·중견기업 흑자를 낸 것은 지난해 3분기(6300만 달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2010년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주로 게임과 컴퓨터 관련 산업 수출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6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5억4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뉴스1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연말 출발

현재 통합 테스트 진행 중... 9월말 본인가 신청 예정

KT가 주도하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9월말 본인가를 신청하고 이르면 연말 영업을 시작한다.

KT는 24일 오전 광화문 KT 사옥에서 K뱅크 사업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지난 22일부터 6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테스트는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필요한 장비 공급,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금융 기관 20여 곳과의 연동 작업 등으로 이뤄졌다.

KT는 두 차례의 인터넷전문은행 통합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9월말 정부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

이다. 이날 KT는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모든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한다고 강조했다. 100% 비대면 금융 거래를 위해 시스템 인프라를 이중화하고,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했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K뱅크는 현재 진행하는 통합테스트는 물론 본인가 신청 이후에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최적화 작업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최상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IT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가계부채 뇌관' 자영업대출 1년 새 27조 급증

50대 이상 63.7% 점유... 은퇴 연령층 생계형 창업 추정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27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 비중이 60% 이상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6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9조722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의 222조9045억원 대비 26조8178억원(12%) 늘어난 수치다. 증가세만 보면 같은 기간 은행권 원화대출 증가율인 8%를 크게 웃돌고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인 7.9%보다도 빠른 셈이다.

대출 잔액을 연령대로 보면, 50대 대출 잔액이 97조9691억원으로 39.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6.6%, 60대 24.5% 순이었다. 50세 이상 은퇴 연령

층 비중이 63.7%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월 대비 고령층 비중은 21.2%에서 24.5%로 3.3%포인트 늘었다. 최근 1년 동안에는 1.4%포인트 상승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도 185만5337건에서 199만1061건으로 7.3%(13만5724건) 증가했다. 건당 대출금액은 1억2542만원에 달했다.

또 개인사업자 신규대출의 평균금리는 같은 기간 3.52%에서 3.40%로 0.1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은행의 이자수익은 같은 기간 11조2327억원에서 11조8524억원으로 6197억원(5.5%) 불었다.

제윤경 의원은 "'은퇴연령층 자영업 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선제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카카오, 취업 콘텐츠 강화 잡플래닛과 제휴

다음 검색과 카카오맵 삼(#) 검색에서 취업 콘텐츠를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기업정보 소셜 미디어 잡플래닛과 제휴를 맺고 자사 검색 서비스에 면접 후기 및 기업 리뷰 등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잡플래닛은 1만5000여 개 기업 정보, 직장인들의 근무 만족도, 면접 후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제휴를 통해 다음 검색과 카카오맵 검색에서 '기업명+채용(예 삼성전자 채용)' 키워드를 입력하면, 잡플래닛에 등록된 채용 정보를 검색 결과로 받아볼 수 있다. /뉴스1

"환전 수수료 어디가 싸나?"

내년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인터넷 환전수수료율 비교 4분기 중 100만원 이하의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 환전

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이 없어 거래 은행이 아닌 여타 은행의 할인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내년 1분기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 은행별 할인을 및 환전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화 종류도 확대한다. 우선 해외여행객을 위해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 신청하면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소액 결제는 별다른 인증절

차 없이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환전 신청시 본인인증절차를 통한 로그인에 필요한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인증절차 없이도 어느 은행이나 환전신청이 가능하도록 손질한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주화를 전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시스템을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자 신고의무위반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투자, 해외차입 등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뉴스1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